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2019. 5. 22.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
2019. 4. 4.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2019. 4. 14.

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 용자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가운데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용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물당 최대 4,000만 원 한도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능보강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개발한 공법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 확산 지연효과 등 화재안전 성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전라북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5일 통과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2020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다.

사업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 건축물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과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방화문·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춰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광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광주광역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가연성 내장재를 교체하고 방화구획 보완이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시설 등에서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건축물과 고시원·산후조리원·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한 곳, 그리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한다.